

# 대명적 표현 연구\*

양동희

전통 문법에서 대명적 표현은 ‘대명사’나 ‘축약적 표현’ 등으로 비교적 간략히 단편적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따라서 대명적 표현 전반의 종합적인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대명적 표현 전반의 종합적 분석을 위한 문법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생성 문법의 발전으로 정립된 지배 결속 이론(支配-結束理論 : government-binding theory)에서는 대명적 표현들을 결속이론의 체계속에서 대명사류(代名詞類 : pronominal)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 문법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배-결속 이론에서 대명사류는 대명사(代名詞 : pronoun), 공대명사류(空代名詞類 : empty pronominal=pro), 그리고 대용사적 대명사류(代用詞的 代名詞類 : anaphoric pronominal =PRO)를 내포한다. 대용사적 대명사류 PRO는 글자 그대로 대용사의 특성을 겸하고 있어서 순수한 대명사류(pure pronominal)는 아니다. 그러나 공대명사류 pro는 순수한 대명사류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의 대명사류와 비교하여 한국어의 대명사류가 촘스키(1980, 1981, 1982, 1986a)의 결속 이론 안에서 어떻게 분석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어 대명사류에 대한 심층 연구는 결속 이론의 대용사에 대한 연구처럼 한국어 대명사류의 보편 문법적 측면과 한국어 특유의 측면을 구분하여 밝혀주고 보편문법에도 공헌할 것이다. 왜냐하면, 촘스키의 결속 이론은 보편 문법의 한 원리로 제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 1. 촘스키의 대명사류론

촘스키(1980)은 보편 문법의 대명사류론(theory of pronominals)으로서 (1)과 (2)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1) 지정 주어 조건(Specified Subject Condition=SSC)

대명사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어를 내포하는 최소 범주(minimal category) 안에서 결속되어서는 안된다.(A pronominal is free in the minimal category containing the nearest subject.)

### (2) 주격 섬 조건(Nominative Island Condition=NIC)

대명사류는 시제가 있는 절(tensed clause)의 주어가 될 수 있다.(A pronominal may be the subject of a tensed clause.)

예를 들어, 다음 짹진 문장들 사이의 문법성의 차이는 지정 주어 조건으로 설명된다.

- (3) ㄱ. John<sub>i</sub> wanted [<sub>s</sub> Mary to like him<sub>i</sub>].  
ㄴ. \*John wanted [<sub>s</sub> Mary<sub>i</sub> to like her<sub>i</sub>].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4) ㄱ. \*They<sub>i</sub> told [NP stories about them<sub>i</sub>].  
     ㄴ. They<sub>i</sub> told [NP my stories about them<sub>i</sub>].

(3ㄱ)에서 대명사류 *him*에 가장 가까운 주어는 *Mary*이고 이 주어를 내포하는 최소 범주는 종속절 전체이다. 이 종속절 속에서 대명사류 *him*은 결속되지 않았으니 이 문장은 지정 주어 조건을 만족시켜 문법적인 문장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3ㄴ)의 경우에도 대명사류 *her*에 가장 가까운 주어는 *Mary*이고 이 주어를 내포하는 최소 범주는 종속절 전체이다. 이 종속절 속에서 대명사류 *her*가 결속되었으므로 지정 주어 조건을 어겨 이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4ㄱ)에서 대명사류 *them*에 가장 가까운 주어는 주절 주어 *they*이고 이 주어를 내포하는 최소 범주는 그 문장 전체가 된다. 이 문장 안에서 대명사류 *them*이 *they*에게 결속되었으니, 이 문장은 지정 주어 조건을 어겨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4ㄴ)에서는, 대명사류 *them*에 가장 가까운 주어는 *my*이고 이 주어를 내포하는 최소 범주는 목적어 명사구이다. 이 명사구 안에서 대명사류 *them*이 결속되지 않았으므로 지정 주어 조건을 만족시켜 이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다음 짹진 문장들 사이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격 섬 조건이 필요하다.

- (5) ㄱ. \*John<sub>i</sub> considers [s, him<sub>i</sub> to be clever].  
     ㄴ. John<sub>i</sub> thinks [s, that he<sub>i</sub> is clever].

(5ㄱ)에서 대명사류 *him*에 가장 가까운 주어는 주절 주어 *John*이고 이 주어를 내포하는 최소 범주는 문장 전체가 된다. 이 문장 안에서 대명사류 *him*이 결속되었으므로 지정 주어 조건을 어겨 이 문장의 비문법성이 설명된다. (5ㄴ)에서도 대명사류 *he*에 가장 가까운 주어는 주절 주어 *John*이고 이 주어를 내포하는 최소 범주는 문장 전체이다. 이 문장 안에서 대명사류 *he*가 결속되었으므로 지정 주어 조건을 어겨, 이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명된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법적이다. 따라서 지정 주어 조건으로는 (5ㄱ)과 (5ㄴ)의 문법성 차이가 설명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격 섬 조건으로 그 차이가 밝혀진다. (5ㄱ)에는 주격 섬 조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5ㄴ)에는 적용된다. 즉, (5ㄴ)이 주격 섬 조건에는 맞는다. 왜냐하면, (5ㄴ)에서 대명사류 *he*는 시제가 있는 절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ㄴ)과 같은 경우는 지정 주어 조건에는 안 맞지만 주격 섬 조건에는 맞는다. 따라서, 대명사류의 경우 지정 주어 조건에 안 맞아도 주격 섬 조건에 맞으면 정문(正文)이 된다고 간주해야 한다.

지정 주어 조건과 주격 섬 조건 사이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촐스키(1981)는 이 두 조건을 통합하는 새로운 결속 이론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 새로운 제안 가운데 한 가지 가정은 지정 주어 조건에서의 ‘가장 가까운 주어’의 개념 속에 ‘가장 가까운 AGR’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것이다. 과연,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5ㄴ)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즉, 이제 (5ㄴ)에서 대명사류 *he*에 가장 가까운 주어는 주절 주어가 아니라 종속절의 INFL 속의 AGR이고 이 AGR을 내포하는 최소 범주는 종속절이 되기 때문에 (5ㄴ)은 지정 주어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와 같이 촐스키(1981)의 통합 결속 이론은 (5ㄴ)과 같은 경우의 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 두 가지 원리를 하나의 원리로 통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촘스키(1981)의 통합 대명사류 결속 원리는 다음과 같다.

#### (6) 대명사류 결속 원리

대명사류는 그 지배 범주(governing category) 안에서 결속되지 않는다.(A pronominal is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지배 범주는 대명사류와 그것의 지배자(支配子: governor) 그리고 그것에게 접근 가능한(accessible) 대주어(大主語: SUBJECT)를 모두 내포하는 최소 범주이다. 대주어는 어떤 지배 범주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명사적 요소(the most prominent nominal element)로서 주어(subject) 또는 주어·동사 일치소(主語·動詞一致素: AGR)를 지칭한다. A가 B에 접근 가능하려면 B는 A의 성분 통어 영역(成分統御領域: c-command domain) 안에 있어야 하며, A의 지표(指標: index)를 B에게 주었을 때 동일지표 내포 금지 조건(同一指標內包禁止條件: i-within-i condition)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대명사류 결속 원리 (6)이 한국어의 대명사류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영어의 예와 함께 살펴보자.

#### (7) ㄱ. \*John<sub>i</sub> hates him<sub>i</sub>.

ㄴ. \*철수<sub>i</sub>가 그<sub>i</sub>를 미워 한다.

(7ㄱ, ㄴ)에서 대명사 *him*과 그의 지배 범주는 각각 그 문장 전체가 된다. 왜냐하면, 그 대명사의 지배자는 동사이고 접근 가능한 대주어(SUBJECT)는 주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배 범주 안에서 대명사가 각각 그 주어에게 결속되었으므로 (7ㄱ, ㄴ)은 (6)을 어겨 비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sup>1)</sup> 만일 (7ㄱ, ㄴ)에서 대명사가 각각 그 주어 이외의 사람, 즉 담화 중의 어떤 사람을 지시한다면 (7ㄱ, ㄴ)은 정문이 된다. 이런 경우도 대명사류 결속 원리 (6)으로 설명된다. 그런 경우에 (7ㄱ, ㄴ)에서 대명사가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되지 않아 (6)을 어기지 않으므로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대명사류 결속 원리 (6)으로 설명된다.

#### (8) ㄱ. John<sub>i</sub> thinks [ ; that Mary hates him<sub>i</sub>].

ㄴ. 철수<sub>i</sub>가 [ ; 영희가 그<sub>i</sub>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8ㄱ, ㄴ)에서 대명사의 지배 범주는 각각 그 종속절이 된다. 왜냐하면, 그 대명사의 지배자(종속절 동사)와 그 대명사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주어(종속절 주어)를 포함하는 최소 범주는 종속절이기 때문이다. 이 지배 범주 안에서 대명사가 결속되지 않았으므로 (8ㄱ, ㄴ)은 (6)에 의하여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8ㄱ, ㄴ)에서 대명사가 주절 주어를 지시하지 않아도 정문이다. 이 사실도 (6)의 원리로 설명된다. 그런 경우에도, 대명사가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되지 않아 (6)의 원리를 만족시키므로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대명사가 종속절의 주어 자리에 온 경우도 (6)의 원리로 설명된다.

1) 한국어에서 주격 토씨 가/이, 목적격 토씨 를/을, 주제 토씨 는/은 등은 성분 통어를 가리는 데 있어 독립된 성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ㄴ)에서 철수가에서 토씨 가는 철수가 그를 성분 통어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9) ㄱ. John<sub>i</sub> thinks [s that he<sub>i</sub> is clever]. (=5ㄴ)

ㄴ. 철수<sub>i</sub>는 [s 그<sub>i</sub>가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9ㄱ)에서 대명사 *he*의 지배 범주는 종속절이 된다. 왜냐하면, 종속절의 주어·동사 일치소인 AGR이 대명사 *he*에 대한 지배자로 되고 접근 가능한 대주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배 범주 안에서 *he*가 결속되지 않았으므로, (9ㄱ)은 (6)의 원리를 만족시켜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9ㄴ)의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9ㄱ)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6)의 원리로는 (9ㄴ)에 대한 그러한 자연스런 설명이 안된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AGR이 없으므로 (9ㄴ)에서 대명사 그의 지배 범주가 종속절로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항상 주어만이 대주어(SUBJECT)가 될 수 있으므로 (9ㄴ)에서 대명사 그의 지배 범주는 그 문장 전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9ㄴ)은 (6)의 원리를 어기게 되어 비문으로 잘못 판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촘스키(1986a)는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수정하게 된다. 촘스키(1986a)가 수정·제안하는 대명사류 결속 원리에서는 뒤에 논의하는 바와 같이 지배 범주 설정에 있어 ‘접근 가능한 대주어’의 개념이 크게 바뀌어서 AGR이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사절에 쓰인 대명사도 비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 (6)의 원리로도 잘 설명된다.

- (10) ㄱ. John<sub>i</sub> will come any time [pp if Mary welcomes him<sub>i</sub>].

ㄴ. 철수<sub>i</sub>는 [pp 영희가 그<sub>i</sub>를 환영해준다면] 언제든지 올 것이다.

(10ㄱ, ㄴ)에서 대명사의 지배 범주는 각각 부사절이 된다. 왜냐하면, 부사절의 동사가 대명사의 지배자가 되고 부사절의 주어가 대명사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주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배 범주 안에서 그 대명사가 각각 결속되지 않았으므로, (10ㄱ, ㄴ)은 (6)의 원리를 만족시켜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다음에는 명사구 안의 대명사를 살펴보자.

- (11) ㄱ. John<sub>i</sub> heard [NP Tom's<sub>i</sub> criticism of him<sub>i</sub>, \*<sub>j</sub>].

ㄴ. 철수<sub>i</sub>는 [NP 영수<sub>i</sub>의 그<sub>i</sub>, \*<sub>j</sub>]에 대한 비판]을 들었다.

(11ㄱ, ㄴ)에서 명사구 안의 대명사에 대한 지배 범주는 그 명사구가 된다. 왜냐하면, 그 각 대명사에 대한 지배자는 전치사 *of* 또는 후치사 *에* 대한이 되고 접근 가능한 대주어는 그 명사구의 주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1ㄱ, ㄴ)에서 대명사는 지배 범주인 명사구의 주어를 지시할 수 없고 다만 그 문장의 주어만을 지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명사가 명사구의 주어를 지시할 때는 (6)의 원리를 어기기 때문이다.

(11ㄱ, ㄴ)에서 명사구의 주어가 대명사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주어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명사구의 주어를 다음 (12ㄱ, ㄴ)에서 보듯이 생략하여도 대명사는 역시 그 문장의 주어를 지시할 수 있다.

- (12) ㄱ. John<sub>i</sub> heard [NP a criticism of him<sub>i</sub>].

ㄴ. 철수<sub>i</sub>는 [NP 그<sub>i</sub>에 대한 비판]을 들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명사구의 주어로서 'PRO와 같은 공법주(PRO-like empty category)'를 다음 (13ㄱ, 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해야 한다고 촘스키(1986a)는 주장한다.

(13) ㄱ. John<sub>i</sub> heard [NP a-PRO<sub>i</sub> criticism of him<sub>i</sub>].

ㄴ. 철수<sub>i</sub>는 [NP PRO<sub>i</sub> 그<sub>i</sub>에 대한 비판]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13ㄱ, ㄴ)에서도 PRO가 대명사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주어가 되어 대명사의 지배 범주는 명사구가 된다는 것이다. (13ㄱ, ㄴ)에서 PRO가 그 문장의 주어 이외의 다른 사람을 지시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비판을 듣는다고 할 때, 남이 하는 비판을 듣지 자기가 하는 비판을 자기가 듣지는 않기 때문이다. (13ㄱ, ㄴ)에서 PRO는 그것을 내포하는 명사구의 핵(核 : head)인 *criticism* 또는 비판에게서 지배받기(governed) 때문에 소위 PRO정리(定理 : theorem)를 어긴다. 따라서, 촘스키(1986a)도 (13ㄱ, ㄴ)의 PRO는 정상적 PRO가 아니라 'PRO와 같은 요소(PRO-like element)'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다음 (14ㄱ, ㄴ)과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그 문장의 주어를 지시할 수 없다.

(14) ㄱ. \*John<sub>i</sub> made [NP a criticism of him<sub>i</sub>].

ㄴ. \*철수<sub>i</sub>가 [NP 그<sub>i</sub>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2ㄱ, ㄴ)에서는 명사구 주어인 비판하는 자와 그 문장의 주어인 듣는 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14ㄱ, ㄴ)에서는 명사구 주어인 비판하는 자가 곧 그 문장의 주어이다. 따라서, (14ㄱ, ㄴ)에 대하여 그 명사구의 주어로서 'PRO와 같은 요소'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음 (15ㄱ, ㄴ)에서 보듯이 그 문장의 주어와 동지표(同指標 : co-index)를 갖게 된다.

(15) ㄱ. \*John<sub>i</sub> made [NP a-PRO<sub>i</sub> criticism of him<sub>i</sub>].

ㄴ. \*철수<sub>i</sub>가 [NP PRO<sub>i</sub> 그<sub>i</sub>에 대한 비판]을 했다.

(15ㄱ, ㄴ)에서도 (13ㄱ, ㄴ)에서처럼 대명사의 지배 범주는 명사구가 되는데, 그 명사구 안에서 대명사가 PRO에게 결속되었으므로 (6)의 원리를 어긴다. 따라서, (14ㄱ, ㄴ)이 비문임이 정확히 판명된다.

한편, 촘스키(1986a)는 명사구의 주어로서 'PRO와 같은 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수의적(隨意的 : optional)이라고 보고, (14ㄱ, ㄴ)과 같은 경우는 명사구 주어로서 'PRO와 같은 요소'를 설정하지 않고도 그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14ㄱ, ㄴ)에서 대명사의 지배 범주는 그 문장 전체가 된다. 왜냐하면, 대명사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주어는 그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배 범주 안에서 대명사가 결속되었으므로, (14ㄱ, ㄴ)은 (6)의 원리를 어겨 비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따라서, (14ㄱ, ㄴ)의 경우에는 명사구의 주어로서 'PRO와 같은 요소'를 설정해도 안 해도 그 비문법성이

(6)의 원리에 의하여 정확히 판명된다.

한편, (12ㄱ, ㄴ)의 경우에는 명사구의 주어로서 ‘PRO와 같은 요소’를 설정했을 때만 그 문법성이 (6)의 원리에 의하여 정확히 판명된다. 그러나 이것이 (6)의 원리에 입각한 (12ㄱ, ㄴ)의 문법성 규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수의적 문법적 과정(optional grammatical process) 때문에, 어떤 문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유도 과정(또는 분석)이 가능할 때, 어떤 한 가지 유도 과정이 적법(適法 : licit)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문장은 완전히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명사구의 주어 자리에 대명사가 온 경우를 살펴보자.

(16) ㄱ. John<sub>i</sub> loves [NP his<sub>i</sub> mother].

ㄴ. 철수<sub>i</sub>가 [NP 그<sub>i</sub>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16ㄱ, ㄴ)에서, 대명사의 지배자는 그 명사구의 핵(head)인 *mother* 또는 어머니가 되고 그 대명사에 접근 가능한 대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 따라서, 그 대명사의 지배 범주는 이 문장 전체가 된다. 그런데, 이 지배 범주 안에서 대명사가 결속되었으므로, (16ㄱ, ㄴ)은 (6)의 원리를 어기어 비문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16ㄱ, ㄴ)은 완전히 문법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앞서 (9ㄴ)에 관련하여 논의했던 것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촌스키(1986a)는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한다.

(17) 수정된 대명사류 결속 원리

대명사류는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되지 않는다. 대명사류의 지배 범주는 그 대명사류의 지배자를 내포하는 최소 완전 기능 구조(最小完全機能構造 : minimal complete functional complex)로서 결속 이론상 적합(結束理論上適合 : BT-compatible)해야 한다. 완전 기능 구조(complete functional complex=CFC)란 모든 가능한 문법적 기능(주어, 목적어 등)을 내포하는 구조로서, 한 마디로 말하여, 주어를 내포하는 완전한 절 또는 명사구를 뜻한다. 결속 이론상 적합하다고 함은 주어진 지배 범주 안에서 어떤 가상적인 지표(index)가 주어졌을 때 결속 이론이 만족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면, 이러한 수정된 대명사류 결속 원리가 (16ㄱ, ㄴ)이나 (9ㄴ)과 같은 경우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살펴보자. 먼저, (17)에 따르면, (16ㄱ, ㄴ)에서 대명사의 지배 범주는 명사구가 된다. 왜냐하면, 그 명사구는 대명사를 내포하는 최소 완전 기능 구조로서 대명사의 지배자를 내포하고 결속 이론상 적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6ㄱ, ㄴ)에서 대명사의 지배자는 명사구의 핵인 *mother* 또는 어머니이므로 당연히 그 명사구 안에 있고, 그 명사구 안의 논항인 그 대명사에게 어떤 가상의 지표가 주어진다고 해도 결속 이론이 만족된다. 즉, 그 명사구 안에서 대명사를 성분 통어하는 결속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대명사는 그 명사구 안에서 항상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만족시킨다. 이와 같이 (16ㄱ, ㄴ)에서 대명사의 지배 범주가 명사구로 확인됨에 따라, (16ㄱ, ㄴ)은 대명사 결속 원리를 만족시켜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9ㄴ)의 경우에도, (17)의 수정된 대명사류 결속 원리에 따르면, 대명사 그의 지배 범주는 종속절이 된다. 왜냐하면, (9ㄴ)에서 종속절은 대명사를 내포하는 최소 기능 구조로서 대명사의 지배자를 내포하고 결속 이론상 적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종속절 안

에서 대명사를 성분 통어하는 결속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대명사는 어떠한 지표가 주어지더라도 그 종속절 안에서 항상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AGR이 없지만, 양동휘(1985b)에서 제안된 다음 (18)의 원칙을 받아들이면, (9ㄴ)에서 대명사는 종속절 안에서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종속절 안에 대명사의 지배자가 있는 셈이 된다.

(18) 격이 주어진 명사구는 구조적으로 지배되지 않을지라도 내재적으로 지배된다. (A case-realized NP is governed inherently, if not structurally.)<sup>2)</sup>

따라서, 이 지배 범주 안에서 대명사가 결속되지 않았으므로, (9ㄴ)은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만족시켜 정문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다음에는 공법주 대명사류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법주 대명사류에는 공대명사류(empty pronominal) pro와 대용사적 대명사류(anaphoric pronominal) PRO가 있다. 먼저 PRO에 대하여 살펴보면, PRO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배되지 않는 자리(un governed position)에만 온다.

(19) ㄱ. John; tries [\$\_i\$ PRO\$\_i\$ to go].  
ㄴ. 철수;가 [\$\_i\$ PRO\$\_i\$ 가려고] 한다.

한국어에는 AGR이 없으므로 한국어에서 주어 자리는 원칙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 다만, 주어 자리에 어떤 명사가 왔을 때는 각주 2에서 밝혔듯이 술부(predicate)로부터의 의미 표시에 의하여 내재적 격(inherent case)이 허가되고 동시에 (18)의 원칙에 의해 내재적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sup>3)</sup> 그러나 (19ㄴ)에서처럼 주어 자리에 D-구조에서부터 공법주

2) 양동휘(1985b)는 AGR이 없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주어의 격은 내재적 격(inherent case)으로서 술부(predicate)로부터의 의미 표시( $\theta$ -marking)에 의하여 허가(許可 : license)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언어에 (18)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3) 그러나 주어에 대한 이러한 술부의 의미 표시에 의한 내재적 격의 허가는 수의적 문법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소위 예외적 격 표시(例外的 格 標示 : Exceptional Case-Marking) 구문에서는 술부의 의미 표시에 의한 격 표시도 가능하고 주절 동사에 의한 격 표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i) ㄱ. 나는 [철수를 바보라고] 믿는다.  
ㄴ. 나는 [철수를 바보라고] 믿는다.

(iㄱ)은 종속절 주어의 격이 종속절 술부의 의미 표시에 의하여 허가된 경우이고 (iㄴ)은 (ii)와 같은 영어의 경우처럼 주절 동사에 의해 종속절 주어의 격이 결정된 경우이다.

(ii) I believe [\$\_i\$ him to be a liar].

따라서, 격 표시(Case-marking)도 수의적(op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iㄱ)도 가능하고 (iㄴ)도 가능하기 때문에 술부의 의미 표시에 의한 격 표시도 주절 동사에 의한 격 표시도 의무적(obligatory)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격 여과(Case filter) 때문에 모든 명사구는 어떤 격 표시이든 한 가지 격 표시를 꼭 받아야 한다. 즉, (iㄱ, ㄴ)의 종속절 주어의 경우 2가지 격 표시가 가능하고 그 2가지 격 표시가 모두 수의적일지라도, 그 2가지 격 표시가 모두 격 용 안 된 경우에는 격 여과를 어기게 된다. 의미 표시도 수의적이며 다만 의미 기준( $\theta$ -criterion) 때문에 의무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촘스키(1986a)는 주장한다.  $\alpha$ -이동도 물론 수의적 규칙이다. 모든 이상적인(unmarked) 문법 규칙은 수의적이라는 것이 지배 결속 이론의 기본 입장이다.

가 왔을 때는 술부로부터의 의미역 표시에 의한 격 표시와 그에 따르는 지배가 한번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그 주어 자리가 전혀 지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19ㄴ)에서 종속절 주어 자리는 비지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사 원리(投射 原理 : projection principle)에 따라 모든 비어 있는 논항 자리에는 어떤 형태의 공법주가 와야 한다면, (19ㄴ)의 종속절 주어 자리는 지배받지 않는(ungoverned) 공법주, 즉 PRO가 온다고 보아야 한다.<sup>4)</sup>

(19ㄱ)에서 종속절의 주어 자리에는 PRO가 온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비지배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즉, 주절 동사 *try*는 ‘예외적 격 표시(ECM)’ 동사가 아니므로 종속절 주어 자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종속절 INFL인 *to*는 AGR을 내포하지 않으므로 그 주어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19ㄱ, ㄴ)의 종속절의 주어 자리에는 PRO가 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PRO란 무엇이며, PRO는 왜 지배되지 않는 자리에만 오는 것일까? PRO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용사적 대명사류(anaphoric pronominal), 즉 [+anaphoric, +pronominal]로 규명되며, 따라서 지배되지 않는 자리에만 나타난다고 촘스키(1981)은 주장한다. 지배-결속 이론에서 [+anaphoric]은 결속 원리(A) 즉 대용사 결속 원리를 준수하는 대용사적 특성을 뜻하고, [+pronominal]은 결속 원리(B) 즉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준수하는 대명사류적 특성을 뜻한다. 따라서, PRO가 [+anaphoric, +pronominal]이라는 것은 대용사적 특성과 대명사류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PRO가 대용사적 특성을 가졌다는 가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0) ㄱ. John<sub>i</sub> wants [PRO<sub>i</sub> to confirm it].
- ㄴ. John<sub>i</sub> wants [himself<sub>i</sub> to confirm it].
- (21) ㄱ. 철수<sub>i</sub>가 [PRO<sub>i</sub>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 ㄴ. 철수<sub>i</sub>가 [자기<sub>i</sub>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20ㄴ)은 약간 어색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20ㄱ)의 종속절은  $\bar{S}$ 로 보아야 하고 (20ㄴ)의 종속절은 S로 보아야 하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20ㄱ, ㄴ)은 본질적으로 같은 구문이다.<sup>5)</sup> 따라서, 대용사 *himself*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대용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PRO는 대용사적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21ㄱ, ㄴ)에서는 각 종속절의 범주상의 차이를 가정할 필요도 없다.<sup>6)</sup>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구문에서 대용사 자기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대용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PRO는 대용사적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 여기서 투사 원리란 ‘투사 원리’와 ‘확대 투사 원리’를 합해 지칭하고 있다.

(i) 투사 원리 : 모든 핵의 어휘적 정보는 모든 계층의 통사 구조(D-구조, S-구조, 논리형태)에 구체적 범주로서 반영되어져야 한다.  
(ii) 확대 투사 원리 : 술부 연결 규칙(predicate-linking rule)이 적용되도록 주어의 범주가 설정되어져야 한다.

5) (20ㄱ)에서는 종속절이  $\bar{S}$ 로서 계속 남아 있다고 보아야 PRO가 *want*에게 지배되지 않아 PRO 경리를 위해하지 않는다. (20ㄴ)에서는 종속절의  $\bar{S}$ 가 삭제된다고 보아야 *himself*가 *want*에게서 지배도 받고 격도 받아 결속 원리를 위한 지배 범주도 구성될 수 있고 격 여과도 위해하지 않는다.

6) (21ㄴ)에서 종속절 주어 자기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속절 술부로부터의 의미역 표시에 의해 주격이 허가된다고 본다.

PRO가 대명사류적 특성을 가졌다는 가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2) ㄱ. [PRO<sub>i</sub>: finishing the work on time] is very important to John<sub>i</sub>.  
ㄴ. [His<sub>i</sub>: finishing the work on time] is very important to John<sub>i</sub>.
- (23) ㄱ. [PRO<sub>i</sub>: 제 때에 그 일을 끝내는 것]은 철수<sub>i</sub>에게 매우 중요하다.  
ㄴ. [그<sub>i</sub>: 제 때에 그 일을 끝내는 것]은 철수<sub>i</sub>에게 매우 중요하다.

(22ㄴ)에서 대명사 *his*는 *John*을 지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7)의 원리에 따르면 *his*의 지배 범주는 주어절이기 때문이다.<sup>7)</sup> (22ㄱ)에서 PRO도 *John*을 지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22ㄱ)에서 PRO는 대명사류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대명사류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겠다. 즉, (22ㄱ)의 PRO는 대명사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23ㄴ)에서 대명사 *그는* 철수를 지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7)의 원리에 따르면 그의 지배 범주는 주어절이기 때문이다. (23ㄱ)에서 PRO도 철수를 지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23ㄱ)에서 PRO는 대명사류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대명사류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겠다. 즉, (23ㄱ)의 PRO도 대명사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PRO가 대용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대명사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PRO에는 대용사 PRO와 대명사류 PRO라는 2가지 별개 종류의 PRO가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샤르 (Bouchard 1983) 같은 학자는 그러한 가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는 PRO가 비지배된 자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된 자리에만 온다고 논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용사인 PRO는 결속 원리(A)를 준수하고 대명사류인 PRO는 결속 원리(B)를 준수해야 할 것인데, 결속 원리(A)와 (B)는 다음 (24)에서 보듯이 ‘지배 범주’를 전제로 하고, ‘지배 범주’는 괴결속 요소의 ‘지배자’를 내포해야 하기 때문이다.<sup>8)</sup>

#### (24) 결속 원리

- (A) 대용사는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되어져야 한다.
- (B) 대명사류는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문제는 PRO가 왜 비주어 자리에는 오지 못하고 주어 자리에만 올 수 있는지 설명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대용사는 주어 자리에도 비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으므로 대용사 PRO도 주어 자리에도 비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야 하고, 대명사류는 원칙적으로 주어 자리에도 비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으므로 대명사류 PRO도 주어 자리에도 비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PRO는 주어 자리에만 올 수 있다.

7) 대명사류는 원칙적으로 그 지배 범주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사물도 지시할 수 있다.

8) 지배 범주가 괴결속 요소의 지배자를 내포해야 한다는 점은 촘스키(1981)의 결속 이론에서도 촘스키(1986a)의 결속 이론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해온 바와 같이 모든 PRO는 대용사적 대명사류(anaphoric pronominal)라는 한 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소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PRO를 대용사적 대명사류로 규명하는 것은 PRO가 항상 대용사적 특성과 대명사류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을 뜻한다. 따라서, PRO는 (24)의 결속 원리 (A)와 (B)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어떤 요소가 (24)의 결속 원리 (A)와 (B)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요소가 한 범주 안에서 결속되기도 하고 결속 안되기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PRO의 결속 이론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PRO가 대용사의 특성과 대명사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PRO가 결속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PRO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설정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길이 열린다. 즉, PRO가 지배자를 갖지 않는다면 지배 범주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결속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여, PRO는 지배받지 않는 자리에만 올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된다. 이것을 ‘PRO 정리(定理 : theorem)’라고 부른다. 동시에 PRO가 주어 자리에만 올 수 있는 이유도 설명된다. 왜냐하면,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논항 자리는 주어 자리뿐이기 때문이다. 부가어 자리도 지배받지 않는 자리이지만 논항자리가 아니므로 PRO가 올 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PRO가 결속 원리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RO는 결속 이론에 의하여 허가(license)되지도 않고 그 선행사가 결정되지도 않는다. 즉, PRO는 결속 이론이 아닌 다른 이론에 의하여 허가되고 그 선행사도 결정되어야 한다. 그 다른 이론이 바로 통제 이론(統制理論 : control theory)이다. 통제 이론에 대하여 뒤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결국, PRO는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준수하지 않으며, 따라서 순수한 대명사류라고 할 수 없다. 촘스키(1982)는 순수한 공범주 대명사류(pure empty pronominal)로서 pro를 설정하고 있다. pro는 결속 원리(B)의 적용을 받으므로 지배자가 있어야 한다. 즉, pro는 지배받는 자리에만 올 수 있다. 그런데, 촘스키(1982)는 풍부한 정보를 내포하는 INFL을 가진 절의 주어 자리에만 pro가 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pro는 INFL에 의해 그 정체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NFL이 그 공범주 주어의 정체를 어느 정도 밝혀 줄 풍부한 정보를 내포하지 않는 언어에서는 pro가 올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영어는 INFL이 빈약하므로 pro가 쓰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INFL이 풍부한 정보를 내포하는 이태리어와 같은 소위 pro 탈락 언어(pro drop language)에서도 주어 자리에만 pro가 쓰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주어 자리에도 pro가 쓰일 수 있고, 특히 영어와 같이 INFL이 빈약한 언어에서도 비주어 자리에 pro가 쓰인다는 주장과 논증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어도 INFL이 빈약한 언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pro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5) 철수<sub>i</sub>가 [영희가 pro<sub>i</sub>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25)에서 투사 원리에 따라 종속절의 목적어 자리에 공범주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pro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것은 PRO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속절 동사 미워한다에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명사구 흔적(NP trace)일 수 없다. 왜냐하면, 명사구 흔적의 선행사는 비의미역 위치( $\bar{\theta}$ -position)에 있어야 하는

폐, (25)에서 공법주의 선행사인 주절 주어 철수는 의미역 위치( $\theta$ -position)에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변항(variable)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25)안에 그것을 비논항-결속(Ā-bind)하는 연산자(operator)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pro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과연 대명사류 결속 원리(17)을 준수한다. 즉, (25)에서 pro와 pro의 지배자를 내포하는 최소 완전 기능 구조는 종속절이므로 이 종속절이 pro의 지배 범주가 되는데, 이 지배 범주 안에서 pro는 결속되지 않았다. 한편, 다음 (26)에서 보듯이 pro가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되었을 때는 과연 비문이 된다.

(26) \*철수<sub>i</sub>가 pro<sub>i</sub> 미워 한다.

(26)에서 pro의 지배 범주는 pro와 pro의 지배자인 동사 미워한다를 내포하는 최소 완전 기능 구조인 문장 전체가 되는데, 이 지배 범주 안에서 pro가 결속되었으므로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위배한다.

## 2. 관련된 기타 결속 원리들과 매개 변인

대명사류가 쓰인 구문이 모두 대명사류 결속 원리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문들의 비문법성은 대명사류 결속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27) ㄱ. \*He<sub>i</sub> hates John<sub>i</sub>.

ㄴ. \*그<sub>i</sub>가 철수<sub>i</sub>를 미워 한다.

(28) ㄱ. \*He<sub>i</sub> loves [NP John's<sub>i</sub> mother].

ㄴ. \*그<sub>i</sub>가 [NP 철수<sub>i</sub>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위의 (27 ㄱ, ㄴ)과 (28 ㄱ, ㄴ)은 모두 대명사류 결속 원리(17)을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이 예문들에서 대명사의 지배 범주는 앞서의 논의에 따라 각각 그 문장 전체가 되는데, 그 지배 범주 안에서 대명사가 결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 ㄱ, ㄴ)-(28 ㄱ, ㄴ)과 같은 경우에, 지배-결속 이론의 결속 이론에서는 대명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명사의 선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위의 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결속 원리(C)를 어겼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라고 본다.

### (29) 결속 원리(C)

지시적 표현(R-expression)은 결속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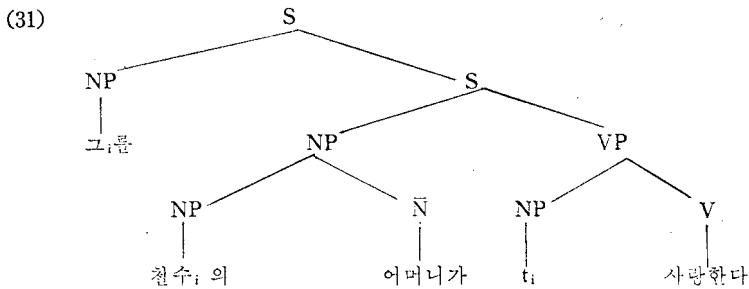
지시적 표현(指시的 表現 : referential expression=R-expression)이란 어떤 구체적 사물을 지시하는 표현으로서 대용사, 대명사류, 의문사, 양화사(量化詞 : quantifier) 등은 제외된다. (27 ㄱ, ㄴ)-(28 ㄱ, ㄴ)에서 대명사의 선행사들은 지시적 표현인데, 대명사에 의해 결속되었으므로 결속 원리(C)를 어겼기 때문에 비문으로 판명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0) ㄱ. [NP 철수<sub>i</sub>의 어머니]가 그<sub>i</sub>를 사랑한다.

ㄴ. \*그<sub>i</sub>를 [NP 철수<sub>i</sub>의 어머니]가 t<sub>i</sub> 사랑한다.

(30ㄱ)에서 대명사 그의 지배 범주는 문장 전체가 된다. 그런데 그는 철수에게 성분 통어되지 않아 결속되지 않으므로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어기지 않는다. 따라서, (30ㄴ)은 정문으로 판명된다. (30ㄴ)은 (30ㄱ)에서 목적어인 그를이 문두로 뒤섞기(Scrambling)된 경우이다. 사이또(Saito 1985)의 주장대로 뒤섞기는 S-부착(S-adjunc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간주하면, (30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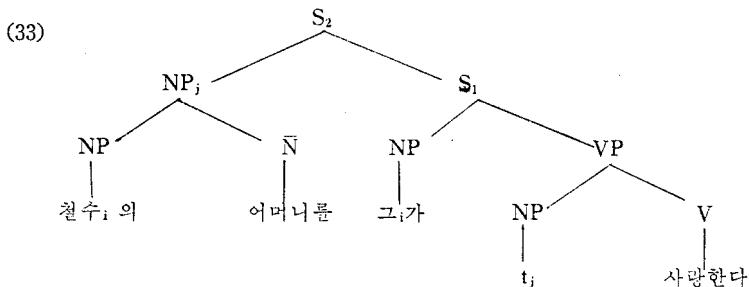


(31)에서 그가 S에 부착되었으므로 비논항 위치(A-position)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연산자(operator)가 되고 그 흔적은 변항(variable)이 된다. 그러나 사이또-호지(Saito and Hoji 1983), 최현숙(1986) 등은 (31)에서와 같이 한정 명사구(definite NP)는 뒤섞기된 뒤에도 논항의 역할을 한다는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논증을 받아들이면 (31)에서 철수는 그에게 결속되므로 결속 원리(C)를 어기게 된다.<sup>10)</sup> 따라서, (30ㄴ)이 (28ㄴ)과 똑같이 비문임이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은 한정 명사구가 뒤섞기된 뒤에도 논항이라는 가설 위에 가능하다. 동시에 이러한 설명은 그런 가설을 지지해 주는 셈이 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32) ㄱ. \*그<sub>i</sub>가 [NP 철수<sub>i</sub>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28ㄴ)  
 ㄴ. \*[NP 철수<sub>i</sub>의 어머니],를 그<sub>i</sub>가 t<sub>j</sub> 사랑한다.

(32ㄱ)의 비문법성에 대한 설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32ㄴ)은 (32ㄱ)에서 목적어 철수의 어머니가 문두로 뒤섞기된 경우이다. (32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9) 이 점에 대하여 양동희(1986a)를 참조할 것.

10) 만일 (31)에서 그가 논항이 아니라 연산자로 간주되면, 철수는 그에게 결속되어도 결속 원리(C)를 어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촘스키의 결속 원리 (A), (B), (C)는 선행사가 논항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결속 이론이기 때문이다.

(33)에서 그의 지배 범주를  $S_1$ 로 보든  $S_2$ 로 보든 대명사류 결속 원리가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명사 그가  $S_1$  안에서도  $S_2$  안에서도 결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명사 그가 철수를 결속하지 못하므로, (33)은 결속 원리(C)도 어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ㄱ)은 (32ㄴ)과 똑같이 비문법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결속 원리(C)를 D-구조에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2ㄴ)은 결속 원리(C)를 어기지 않지만, 그것의 D-구조인 (32ㄱ)이 결속 원리(C)를 어기니까 비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결 방법은 결속 원리(C)가 D-구조에도 적용된다는 가설을 정당화해야 하는 부담을 악용한다.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다.

(34) 결속 원리(C)의 적용에 있어, 뒤섞기의 부착으로 생겨난 범주는 무시된다.

즉, (33)에서  $NP_i$ 의 뒤섞기로 생겨난  $S_2$ 의 범주를 무시한다면, 대명사 그가 철수<sub>i</sub>를 성분 통어하여 결속하므로, 결속 원리(C)를 어기 (32ㄴ)이 비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결 방법도 (34)의 조건을 일반화/정당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5) ㄱ. 철수<sub>i</sub>가 [NP 그<sub>i</sub>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16ㄴ)

ㄴ. \*누<sub>i</sub>가 [NP 그<sub>i</sub>의 어머니]를 사랑하니?

ㄷ. ??누구나<sub>i</sub>가 [NP 그<sub>i</sub>의 어머니]를 사랑한다.

(35ㄱ)의 문법성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즉, (35ㄱ)에서 대명사 그는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35ㄴ, ㄷ)에서도 대명사 그가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만족시킨다고 보겠다. 과연, 몬탈베티(1984)에 따르면, (35ㄴ, ㄷ)은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어긴 것이 아니라 다음 (36)의 원칙을 어겼을 비문으로 판정된다.

(36) 공범주 대명사류로 대치될 수 있는 대명사는 비지시적 표현(의문사, 양화사)에게 결속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의 대명사는 공범주 대명사류로 대치될 수 있으므로 비지시적 표현에 의하여 결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35ㄴ, ㄷ)에서는 대명사 그가 의문사 누구 또는 양화사 누구나에게 결속되었으므로 비문이 된다. 논리형태에서 누구와 누구나가  $\alpha$ -이 동일 뒤에도 (35ㄴ, ㄷ)은 (36)의 원칙을 어긴다. 그런데, (35ㄷ)이 (35ㄴ) 보다 약간 더 나은 것은 수수께끼로 남는다. 특히, 일반적으로 양화사가 의문사보다 비지시성(non-referentiality)이 더 높다고 간주되어 왔으므로,<sup>11)</sup> (35ㄷ)이 (35ㄴ)보다 좀더 낫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앞서 우리는 한국어에도 순수한 공범주 대명사류 pro를 인정해야 하며 한국어의 pro는 예상대로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준수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대명사와 공범주 대명사류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11) 의문사는 양화사와 달리 준연산자(quasi-operator)라고 불려 왔다.

- (37) ㄱ. [NP 철수<sub>i</sub>의 친구]가 그<sub>i</sub>를 만났다.  
     ㄴ. \*[NP 철수<sub>i</sub>의 친구]가 pro<sub>i</sub> 만났다.
- (38) ㄱ. [<sub>s</sub> 김씨<sub>i</sub>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sub>i</sub>를 좋아한다.  
     ㄴ. \*[<sub>s</sub> 김씨<sub>i</sub>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pro<sub>i</sub> 좋아한다.
- (39) ㄱ. [<sub>s</sub> 그<sub>i</sub>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김씨<sub>i</sub>를 좋아한다.  
     ㄴ. [<sub>s</sub> pro<sub>i</sub>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김씨<sub>i</sub>를 좋아한다.

(37 ㄱ), (38 ㄱ), (39 ㄱ)에서 대명사 그가 대명사류 결속 원리를 만족시켜, 이 예문들은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문들에서 대명사 그를 공법주 pro로 대치한 (37 ㄴ), (38 ㄴ), (39 ㄴ)에서도 pro가 대명사류 결속원리는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 ㄴ)과 (38 ㄴ)은 비문이고 (39 ㄴ)은 정문인 이유는 다음 (40)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설명 될 수 있다.

(40) 결속 원리(C)가  $\alpha$ -구조에서 pro에게 적용된다.

$\alpha$ -구조란 간단히 말하여 VP가 없는 구조를 뜻한다.<sup>12)</sup> 즉, (37 ㄴ)과 (38 ㄴ)의  $\alpha$ -구조에서는 pro가 선행사를 결속하여 결속 원리(C)를 어기고, (39 ㄴ)에서는 pro가 종속절에 있으므로  $\alpha$ -구조에서도 선행사를 결속하지 못하므로 결속 원리(C)를 어기지 않는다.

### 3. 비결속 요인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1) ㄱ. ??[NP 그<sub>i</sub>의 어머니]가 철수<sub>i</sub>를 사랑한다.  
     ㄴ. 철수<sub>i</sub>를 [NP 그<sub>i</sub>의 어머니]가 t<sub>i</sub> 사랑한다.

(41 ㄱ, ㄴ)은 모두 대명사류 결속 원리도 결속 원리(C)도 만족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ㄴ)은 완전히 문법적이고 (41 ㄱ)은 좀 어색하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비결속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sup>13)</sup>

- (42) 선행사 선행 원칙(先行詞 先行 原則)  
     한국어에서 대명사가 그 선행사를 뒤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43) ㄱ. ?\*[NP 그<sub>i</sub>의 사고]가 철수<sub>i</sub>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다.  
     ㄴ. ??[NP [<sub>s</sub> 작년에 그<sub>i</sub>에게 일어났던] 사고]가 철수<sub>i</sub>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다.  
     ㄷ. [NP [<sub>s</sub> [NP 그<sub>i</sub>의 동생]이 일으킨] 사고]가 철수<sub>i</sub>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다.

12)  $\alpha$ -구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것은 촘스키(1981:132)를 참조할 것.

13) 만일 뒤섞기된 한정 명사구가 연산자가 된다면 (41 ㄴ)은 약교차 제약(弱交叉 制約 : Weak Cross-over Constraint)을 어긴다. 따라서, (41 ㄴ)과 같은 예문은 한국어에서 뒤섞기된 한정 명사구가 연산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해 준다.

(43ㄱ, ㄴ, ㄷ)은 모두 결속 원리(B)도 (C)도 어기지 않는다. 다만, 모두 (42)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문법성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역시 다음과 같은 비결속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44) 대명사가 선행사 선행 원칙을 어겼어도 내포(embedding)된 정도에 따라 문법성이 회복될 수 있다.

즉, (43ㄱ)에서처럼 대명사가 내포된 정도가 낮으면 문법성이 낮은 상태에 그대로 있지만, (43ㄷ)에서처럼 대명사가 내포된 정도가 높으면 문법성도 그 정도만큼 향상된다.

#### 4. 통제 이론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5) ㄱ. 철수;<sub>i</sub>가 영희에게 [PRO;<sub>i</sub>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ㄴ. 철수;<sub>i</sub>가 영희에게 [자기;<sub>i</sub>가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ㄷ. ?철수;<sub>i</sub>가 영희에게 [그;<sub>i</sub>가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46) ㄱ. 영희가 철수;<sub>i</sub>에게 [PRO;<sub>i</sub> 떠나도록] 설득하였다.

ㄴ. \*영희가 철수;<sub>i</sub>에게 [자기;<sub>i</sub>가 떠나도록] 설득하였다.

ㄷ. 영희가 철수;<sub>i</sub>에게 [그;<sub>i</sub>가 떠나도록] 설득하였다.

(45ㄷ)에서는 대명사 그가 주절 주어인 철수만을 지시하고 (46ㄷ)에서는 대명사 그가 주절 여격어인 철수만을 지시한다. 이것은 분명히 두 문장에 있어 통제 현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대명사는 원래 그 지배 범주 밖에서는 다음 (47)에서 보듯이 원칙적으로 어떤 명사구/사물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7) 철수;<sub>i</sub>가 영수;<sub>j</sub>에게 [그;<sub>i,j</sub>가 더 키가 크다고] 말했다.

(46ㄴ)이 비문인 것은 자기가 주절 여격어 철수를 지시한다고 할 때, 통제 원리는 만족시키지만 대용사 결속 원리를 어기기 때문이다. 즉, 자기는 상위절의 비주어를 지시하지 못한다. (45ㄴ)에서는 자기가 주절 주어 철수를 지시한다고 할 때, 통제 원리도 대용사 결속 원리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통제 이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48) 통제 원리는 비지배의 논항 위치에 적용된다.

한국어에서 비지배의 논항 위치는 주어 자리뿐이므로 통제 원리가 주어 자리에만 적용됨이 설명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45ㄴ, ㄷ)-(46ㄴ, ㄷ)의 경우에도 종속절 주어 자리는 역시 비지배의 논항 위치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AGR이 없기 때문이다. 주어 자리에 명사구가 온 것은 동사구인 술부의 의미역 표시에 의하여 그 명사구에 대한 내재적 격이 허가되고, 그 허가된 내재적 격에 의해 명사구가 내재적으로 지배될 뿐 그 자리가 외재적으로 지배(external government)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제 이론은 PRO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지배의 논항 위치에 적용되

는 이론이다.

### 5. 결론 및 전망

이상의 한국어 대명사류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촐스키의 대명사류론이 한국어 대명사류의 기본적 현상에는 잘 적용되고 따라서 상당한 설명력을 발휘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게 된다. 그러나 촐스키의 결속 이론이 한국어 대명사류의 기본적 현상에 잘 적용되고 설명적이라는 것은 촐스키의 결속 이론이 한국어 대명사류의 다른 세부적 현상에까지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개선·발전되어 갈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그러한 개선·발전의 시사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스닉(Lasnik 1986)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촐스키의 결속 원리(C)는 둘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49) ㄱ. ?철수<sub>i</sub>가 철수<sub>i</sub>를 미워한다.
- ㄴ. \*그<sub>i</sub>가 철수<sub>i</sub>를 미워한다. (=27 ㄴ)

촘스키의 결속 이론에 따르면, (49 ㄱ, ㄴ)은 다같이 결속 원리(C)를 어길 뿐이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의 문법성의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한편, 황(Huang 1988)은 다음 (50)과 같은 표현에서 두번째 문장의 목적어를 pro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동사구 삭제(VP-deletion)현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50) 철수가 영희<sub>i</sub>를 만났다. 그리고 영수도 pro<sub>i</sub> 만났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황은 (50)의 두번째 문장의 동사 만났다는 실제로 다음 (51)과 같은 동사구 삭제의 영어 문장에서 *did*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 (51) John met Mary. And Tom did, too.

따라서, 만일 (50)의 두번째 문장이 (51)의 두번째 문장과 문법적으로 동일한 기능의 문장이라면, 즉 모두 동사구 삭제 구문이라면, (50)의 두번째 문장의 목적어로서 pro를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한국어의 대명사류 현상은 다각도로 연구·분석되어 가겠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기본이 되는 근간은 촐스키의 대명사류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 고 문 헌

- 김영선(1988) *A Unified Theory of Control in English*,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성호(1988) *The Korean Reciprocal 'selo'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Binding Theory*,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 양동희(1973) *Topicalization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양동휘(1982) ‘수정 확대 표준 이론’, 『현대 영어학 연구』, 신아사.
- 양동휘(1983) “The Extended Binding Theory of Anaphors,” 「어학연구」 19. 2.
- 양동휘(1984) ‘한국어 통사론 연구의 새로운 전망’, 「한글」 183.
- 양동휘(1985a) ‘확대 결속 이론’, 「한글」 188.
- 양동휘(1985b) “On the Integrity of Control Theory,” *NELS* 15.
- 양동휘(1985c) ‘지배-결속 이론의 이론적 배경’, 「언어와 언어학」 11. 한국외국어대학교.
- 양동휘(1986a) ‘한국어의 대용사론’, 「국어학」 15.
- 양동휘(1986b) ‘관계화’, 『영문법개론(Ⅱ)』, 신아사.
- 양동휘(1987) ‘서평 : 임홍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국어생활」 11.
- 양동휘(1988) ‘현대 언어학과 인본주의’, 『후미니즘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익섭(1978) ‘한국어의 재귀 대명사에 대하여’, 「인문논총」 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이정민(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임홍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장 선(1977) “Korean Reflexive Pronoun *Caki* and Its Referent NP's Point of View,” 「어학 연구」 13. 1. 서울대학교.
- 조숙환(1985) *Issues in the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Korean Anaphor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 최현숙(1986) “Syntactic Adjunction, A-chain and the ECP—Multiple Identical Case Construction in Korean,” *NELS* 17.
- 홍성심(1985) *A and A' Binding in Korean and English: Government-Binding Parameter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Aoun, J. (1985) *A Grammar of Anaphora*, The MIT Press.
- Baker, M. (1985)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Ph.D. dissertation, MIT.
- Barwise, J. and S. Peters (1987) *Lectures on Situation Theory and Situation Semantics*, Hanshin Publishing Co.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gman Group Ltd.
- Bouchard, D. (1983) *On the Content of Empty Categories*,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 Chomsky, N.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Chomsky, N. (197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Plenum Press.
- Chomsky, N. (1977) “On WH-Movement,” *Formal Syntax*, Academic Press.
- Chomsky, N. (1980a)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
- Chomsky, N. (1980b) *Rules and Represent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 Chomsky, N.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The MIT Press.

-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Publishers.
- Chomsky, N. (1986b) *Barriers*, The MIT Press.
- Chomsky, N. (1987) "Transformational Grammar: Past, Present, and Future," ms., MIT.
- Clements, G. (1975) "The Logophoric Pronoun in Ewe: Its Role in Discourse," *Journal of West African Linguistics* 10.2.
- Dik, S. (1978) *Functional Grammar*, North-Holland.
- Fukui, N. (1984) "The Adjunct Subject Hypothesis and 'Zibun,'" ms., MIT.
- Fukui, N. (1988) "LF Extraction of *Naze* 'why':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6.4.
- Gazdar, G. (1979) *Pragmatics*, Academic Press.
- Givó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 Gunji, T. (1983)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and Japanese Reflexiviz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6.1.
- Huang, J.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ory of Grammar*, Ph.D. dissertation, MIT.
- Huang, J. (1988) "Comments on Hasegawa's Paper," *Proceedings of Japanese Syntax Workshop: Issues on Empty Categories*, Connecticut College.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 Kameyama, M. (1984) "Subjective/Logophoric Bound Anaphor *Zibun*," *CLS* 20.
- Kuno, S. (1972)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Linguistic Inquiry* 3.2.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 Kuno, S. (1976) "Subject, Theme and Speaker's Empathy: A Reexamination of Relativization Phenomena," in Li, C. ed.,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 Kuno, S. (1978) *Discourse Grammar* (in Japanese), Tokyo: Taishukan.
- Kuno, S. (1987) *Functional Syntax*,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2.1.
- Lasnik, H. (1986) "On the Necessity of Binding Conditions,"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 Lasnik, H. and M. Saito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nguistic Inquiry* 15.
- Manzini, R. (1983) "On Control and Control Theory," *Linguistic Inquiry* 14.3.
- May, R. (1985) *Logical Form: Its Structure and Derivation*, The MIT Press.
- McCawley, N. (1976) "Reflexivization: A Transformational Approach," *Syntax and Semantics* Vol. 5. Academic Press.
- Montalbetti, M. (1984) *After Binding*, Ph.D. dissertation, MIT.
- Piaget, J. (1926)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trans., M. Gabain, Routledge & Paul Ltd.

- Pica, P. (1984) "Subject, Tense and Truth: Towards a Modular Approach to Binding," in J. Guéron, H.-G. Obenauer, J.-Y. Pollock (eds.) *Grammatical Representation*, Foris Publications.
- Pica, P. (1987) "On the Nature of the Reflexivization Cycle," *NELS* 17.
- Reinhart, T. (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Ph.D. dissertation, MIT.
- Ross, J.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D. dissertation, MIT.
- Rothstein, S. (1983)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Ph.D. dissertation, MIT.
- Saito, M. (1982) "Case Marking in Japanese," ms., MIT.
- Saito, M. (1985) *Some Asymmetries in Japanese and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Ph.D. dissertation, MIT.
- Saito, M. and H. Hoji (1983) "Weak Crossover and Move- $\alpha$  in Japanese,"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1.2.
- Searle, J. (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inner, B. (1957) *Verbal Behavior*, Appleton-Century-Crofts.
- Ueda, M. (1984) "On a Japanese Reflexive *Zibun*: A Non-Parameterized Approach,"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1.